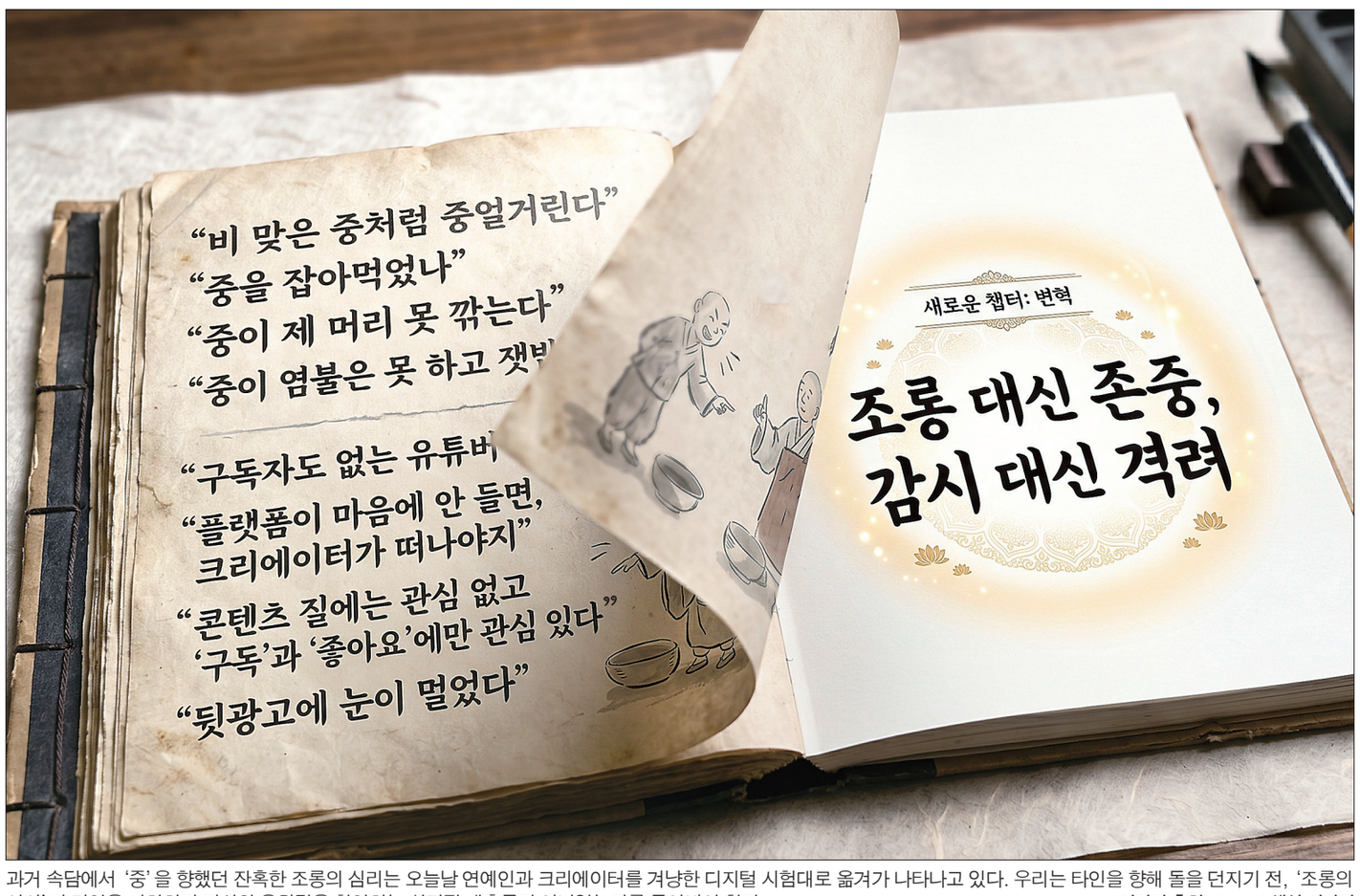
조롱의 투석 거두는 세상을 꿈꾸며

언어로 읽는 불교의 풍경

⑤ 삭발하지 않은 승려들, 현대판 '중'의 탄생 : 디지털 시험대에 놓인 새로운 타자들



과거 속담에서 '중'을 향했던 잔혹한 조롱의 심리는 오늘날 연예인과 크리에이터를 겨냥한 디지털 시험대로 옮겨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타인을 향해 돌을 던지기 전, '조롱의 서사'가 타인을 비하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심리적 배출구가 아니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이미지 출처=Gemini 생성 이미지

지난 칼럼에서 살펴봤듯, 속담 속 '중'은 마음껏 비웃어도 보복당할 염려 없는 '가장 만만한 상대'였다. 눈에 띄는 삭발과 금욕의 삶은 대중에게 손쉬운 조롱의 구실이 됐고,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들을 비하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심리적 배출구로 삼아왔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는 이런 속담을 즐겨 쓰지 않는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비 맞은 중" 같은 말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사어(死語)가 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상어에서 더 이상 '중'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중생심'도 함께 사라진 것일까.

안타깝게도 언어의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그 심리적 문법은 더욱 잔혹하게 살아남았다. 우리는 디지털 세상과 대중문화 안에서 조롱해도 안전한 '또 다른 중들'을 찾아냈을 뿐이다. 바로 크리에이터와 연예인이다. 과거의 속담 속 '중'이 이들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변주되고 있는지, 그 세계로 들어가 보자.

산문에서 플랫폼과 전파의 질서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이 오래된 속담은 산문(山門)의 질서가 절대적이던 시대의 언어다. 오늘날 이 문장은 디지털과 대중문화 생태계에서 이렇게 변주된다. "플랫폼이 마음에 안 들면, 크리에이터가 떠나야지", "시청자가 외면하면 연예인이 은퇴해야지."

크리에이터는 플랫폼이 설계한 알고리즘에, 연예인은 대중의 기호와 방송계의 문법에 종속된다. 그들은 대중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전시하고, 여론의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자신을 조율해야 한다. 그 질서가 불합리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다. 대중이라는 절대 권력은 애초에 질문 자체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능의 바닥선, 그 낙인의 언어

"중노릇도 못할 놈." 이 말은 단순한 욕이 아니다. '중'을 가장 쉬운 역할로 놓고, 그것조차 못 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는 표현이다. 이렇게 남을 가장 아래에 내려놓으면서, 말하는 사람은 은근히 "나는 저보다는 낫다"는 우월감을 맛본다.

이런 말투는 지금도 형태만 바꿔 살아 있다. "구독자도 없는 유튜버", "무명 연예인"이라는 비아냥이 그렇다. 특히 유튜브는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안에서 선택받지 못하면, 가장 쉬운 일조차 못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예전의 '중'이 최소한의 역할도 못 하는 존재로 그려졌듯, 지금의 인기 없는 크리에이터나 셀럽들도 비슷한 위치에 놓인다. 조롱의 표현은 달라졌지만, 남을 가장 아래에 세워두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그 심리적 문법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tvN 조롱 대상 된 크리에이터와 연예인
과거 '중' 조롱하던 속담 심리의 확장판
타인 깎아내며 우월감 확인 심리 작용
'방송 퇴출'·'활동 중단'까지 이르게 해
디지털 시험대 향한 잔혹한 불길 멈춰야

디지털 삭발: 숨을 곳 없는 노출의 얼굴

과거의 중에게 '삭발'이 숨을 곳 없는 외형적 표식이었다면, 현대의 방송인에게는 매체에 노출된 '얼굴' 그 자체가 피할 수 없는 삭발이다. 카메라 앞에 선 순간 그들은 발가벗겨진 타자가 된다. 대중은 그들의 일상을 초 단위로 감시하며, 그들이 정말로 '구독자 수'나 '인기'라는 번뇌를 끊고 대중에게 약속한 '진정성'이나 '청정한 이미지'를 지키고 있는지 끊임없이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은 현대판 파계(破戒)의 서사와 닮아 있다. 음식을 몰래 뱉는 '먹뱉'이나 가짜로 연출된 '주작' 영상, 연예인의 '인성 논란'은 수행자가 가짜 염불을 외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중은 그 배신감을 빌미로 거침없이 공격한다. 물론 잘못을 했다면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앞에 선 대중의 상태는 정의감보다는, 가학적 쾌감이나 집단적 폭력에 더 가깝다는 게 문제다.

심지어는 없는 허물까지 찾아내려는 집요함을 보이기도 한다. 과거 "중의 상투"나 "중 나라 가서 빗 찾기"처럼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아 조롱거리로 삼으려 했듯, 오늘날 대중은 셀럽의 비공개 계정이나 오래된 과거 행적을 추적하며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데서 집단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잿밥의 변주, 구독과 좋아요

"중이 염불은 못 하고 잿밥만 밝힌다." 이 속담도 오늘날 셀럽에게 그대로 반복된다. "콘텐츠 질에는 관심 없고 수익에만 눈이 멀었다"거나 "뒷광고나 CF에만 몰두한다"는 비난이 바로 그것이다. 인플루언서와 연예인에게 염불은 대중과 약속한 가치이자 본업이며, 광고 수익과 골드 버튼은 세속적 잿밥이다.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에 빈대가 안 남는다", "중이 젓갈 맛을 알면 불상을 팔아 치운다"처럼 금욕을 선언한 자가 스스로 설정한 금기를 깨는 순간, 대중의 비난은 거세진다. 이는 올바른 정보 제공자를 자처하다가 뒤로는 자본과 결탁한 '뒷광고' 논란이 터질 때 그대로 변주된다.

뒷광고 논란이 터지면 대중은 이유도, 해명도 기다리지 않는다. 위선의 냄새를 맡은 순간 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다. 그 모습은 공정한 비판자라기보다, 조롱해도 안전한 대상을 찾아낸 순간의 본능적인 흥분에 더 가깝다. "중이 고기 맛을 알았다"는 소문 하나면 충분했듯, "유튜버나 배우가 돈맛을 알았다"라는 단어 하나면 충분하다. 대중은 그를 시험대 위에 올려 마음껏 돌을 던진다.

자비 없는 추적자: 더 가혹해진 디지털 사형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은 이들을 향한 공격이 과거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잔혹해졌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중은 파계를 하면 산문 밖으로 쫓겨나는 정도로 끝났지만, 현대의 '디지털 중'들은 '사이버 렉카'라 불리는 추적자들에 의해 사회적 숨통이 끊길 때까지 공격당한다. 특히 연예인에게 내려지는 '방송 퇴출'과 '활동 중단'은 현대판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이는 과거 '중'을 조롱하던 심리의 확장판이다. 본래 중은 출가와 동시에 자신을 보호해 줄 가족과 친척의 배경을 스스로 끊어낸 존재였다. 그래서 탈춤 속 '중'에 대한 조롱은 양반을 비웃을 때와 느낌이 달랐던 것이다. 현실의 권력을 쥔 양반을 조롱할 때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뒤를 보아줄 사람이 없는 '노장'을 향한 조롱은 거리낌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마음껏 돌을 던져도 나를 해치지 못하리라는 그 비겁한 안도감이 '중'을 가장 만만한 과녁으로 만들었다.

오늘날의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역시 대중의 관심이 끊기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배후 없는 개인'들이다. 정치 권력이나 거대 자본을 건드리는 일은 여전히 보복이 두렵지만, 이들을 향한 공격은 화면 속에서 즐기는 '안전한 심판의 유희'로 바뀌어 버린다.

결국 우리는 가장 만만한 대상을 골라 낙인을 찍는 '현대판 마녀사냥'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중생심은 주소만 옮겼을 뿐

속담 속 '중'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 자리를 대신해 더 잔혹한 디지털 시험대가 세워졌음을 살펴보았다. 비하의 대상이 다른 이들로 옮겨갔을 뿐, 타자를 깎아내려 내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우리 안의 지독한 습관은 그대로 남아 있다.

누군가 물을 수 있다. "불교 칼럼에서 왜 엉뚱하게 방송인 이야기를 다루지?"라고 말이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되묻고 싶다. 내 집 불이 꺼져간다고, 옆집으로 번지는 것을 모른 척하는 게 정말 괜찮은 일이냐고. '중생심'이라는 이 지독한 불길이 담장을 넘어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하고 있다면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니냐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집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불교적 통찰은 단순히 불교 용어가 공격받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언어 속에 투영된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데 있다. 연예인과 유튜버 이야기가 불교와 무관해 보여도, 그 안에서 변주된 '중생심'까지 보아야 불교의 풍경을 제대로 읽는 일이다. 대상이 누구든, 누군가를 만만한 과녁으로 삼아 돌을 던지려는 그 손을 멈추는 찰나, 당신은 이미 붓다이다.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